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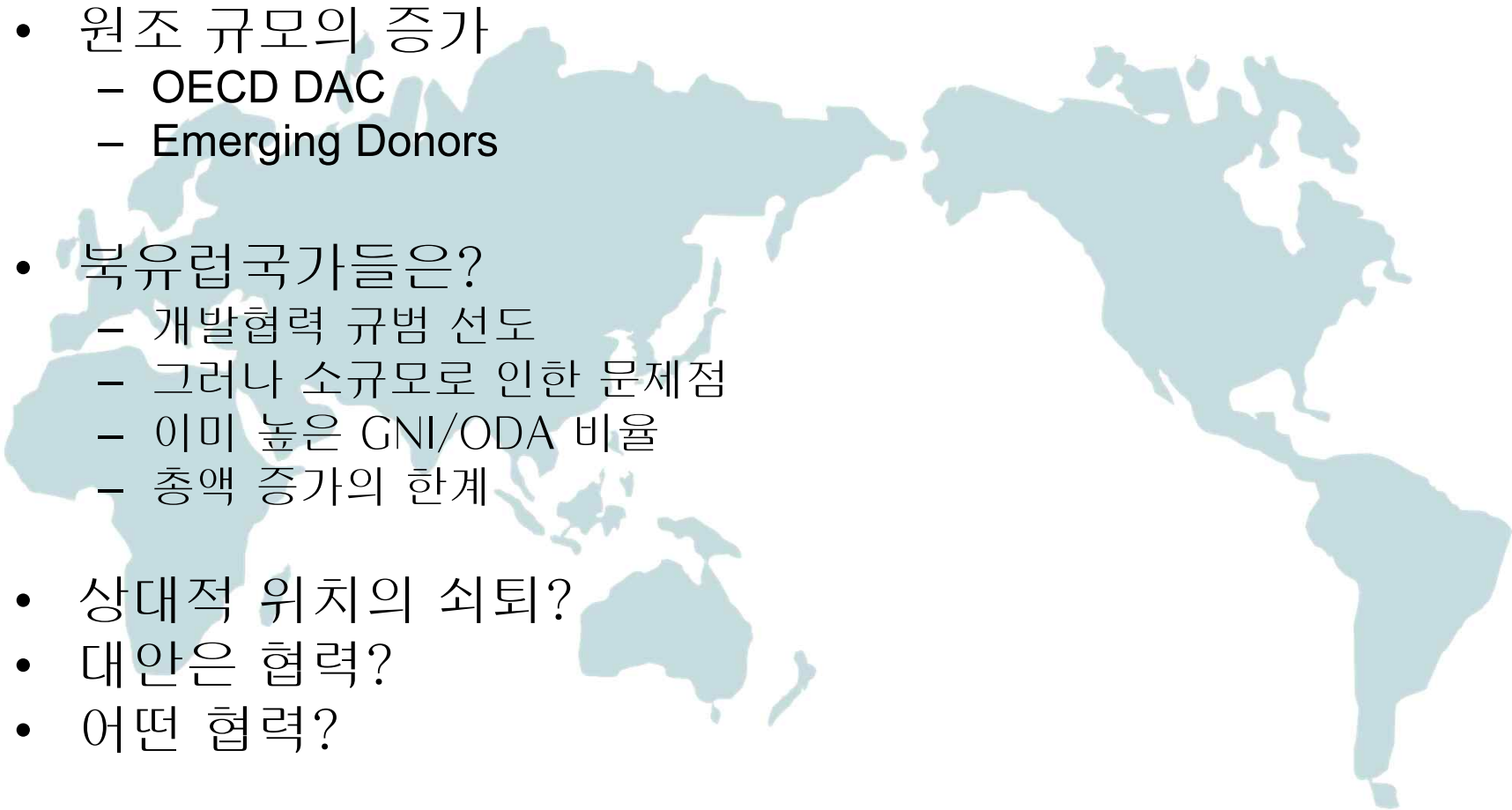
# 개발협력과 중견국외교: 노르딕 플러스의 위임협력

2013/5/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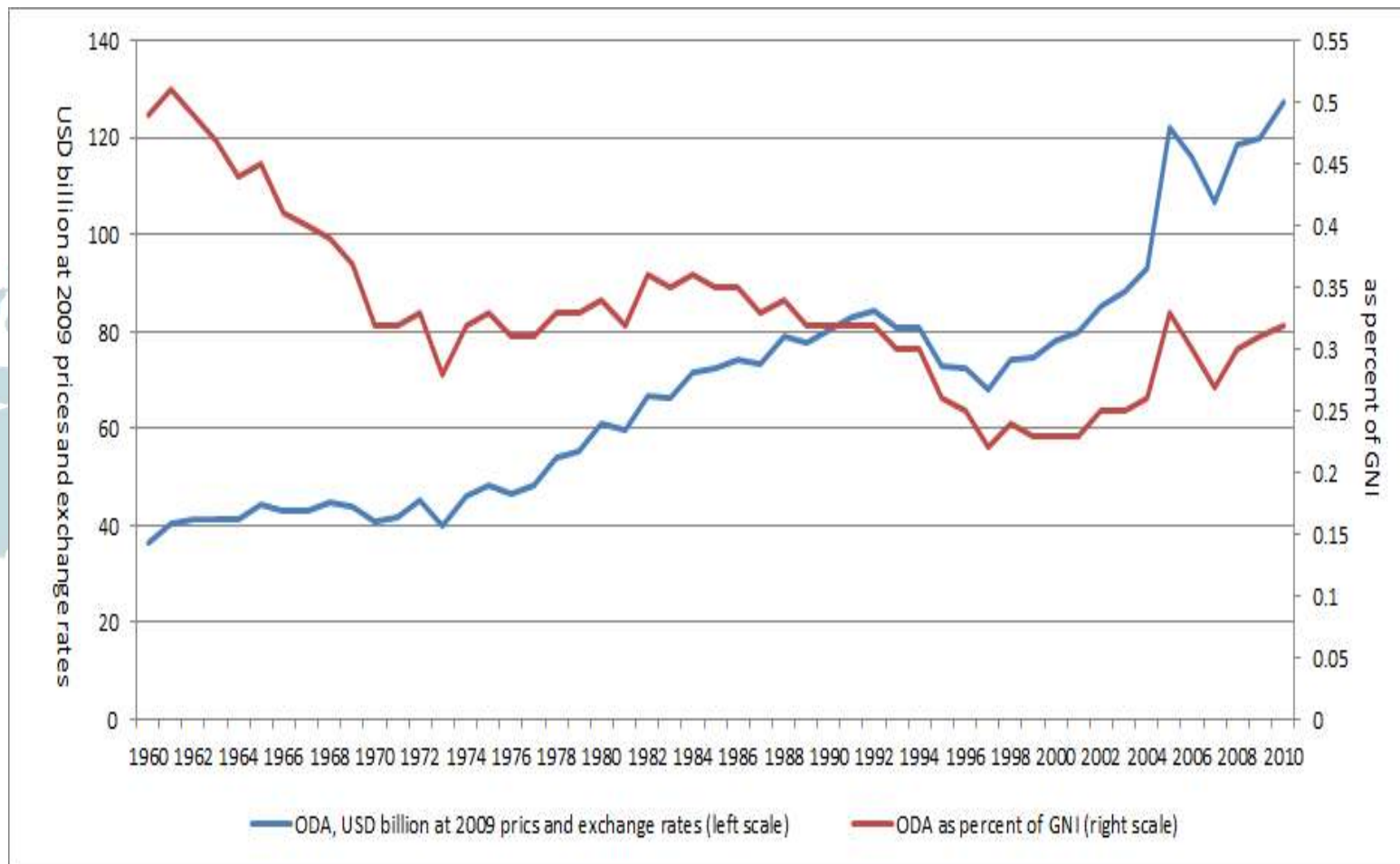
이승주  
(중앙대)



# Why Delegate?

- 원조 규모의 증가
    - OECD DAC
    - Emerging Donors
  - 북유럽국가들은?
    - 개발협력 규범 선도
    - 그러나 소규모로 인한 문제점
    - 이미 높은 GNI/ODA 비율
    - 총액 증가의 한계
  - 상대적 위치의 쇠퇴?
  - 대안은 협력?
  - 어떤 협력?
- 

# OECD DAC ODA, 1960~2010



Source: OECD DA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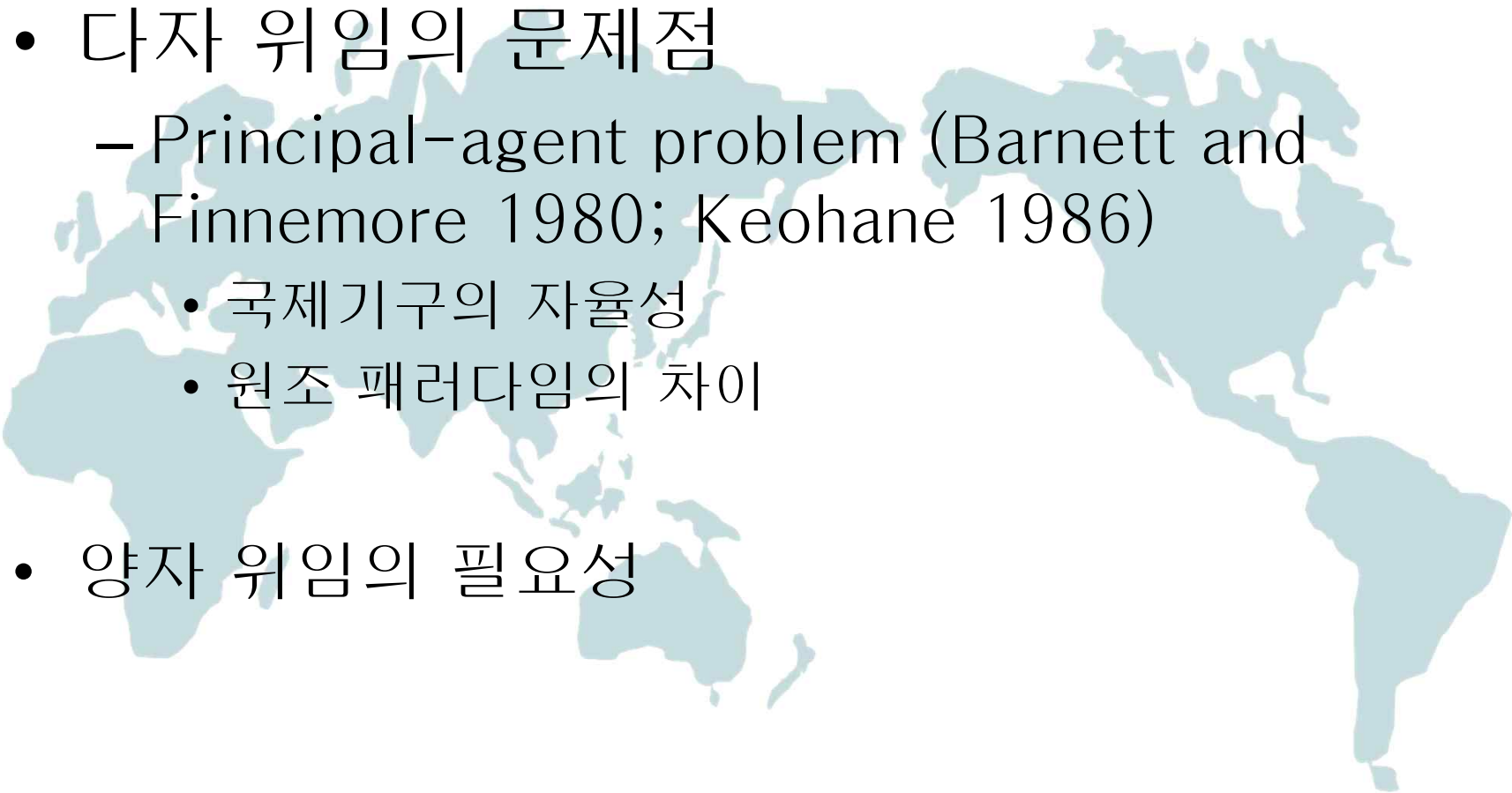
# 중견국외교: 이론적 검토

- Power
    - 강대국에 편승
    - Niche diplomacy
  - 제도
    - multilateralism
    - Rule maker vs. Rule taker
  - 규범
    - Universal/humane internationalism
    - Wet vs. dry (Higgott)
  - Coalition building
    - Power, skill, knowledge, entrepreneurship ...
  - Positional power
    - Material vs. network power
- 

## Delegated Cooperation: 이론적 근거

- 다자 위임협력
  - 국제기구에 위임: UN, World Bank
    - 전문성, 정책 신뢰도, 수원국에 대한 정보(Rodrik 1996)
    - 책임회피(Vaubel 1986; Vreeland 2003)

## Delegated Cooperation: 이론적 근거

- 다자 위임의 문제점
    - Principal-agent problem (Barnett and Finnemore 1980; Keohane 1986)
      - 국제기구의 자율성
      - 원조 패러다임의 차이
  - 양자 위임의 필요성
- 

# Delegated Cooperation

- 두 가지 딜레마

- 원조 규모

- 전세계적 차원의 원조 조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
    - 소규모 공여국: 개별 원조의 소규모화
    - 거대 공여국 및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
    - Donor shopping의 대두

- 협력의 수준

- 조정 vs. 위임협력 vs. 원조분업
    - 이탈(exit) 여부
    - 차선책

## 협력의 수준

- 세 가지 차원
  - 조정(coordination): procurement and joint financing
  - 원조 분업: 비교열위 부문에서 이탈(exit)을 전제로 한 협력
    - in-country division of labour
  - 위임협력



# 북유럽 국가

- 북유럽
    - 이념적, 정책적 유사성: Nordicity
    - Like-minded group
  -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공유(Oden 2011)
    - 최빈국에 대한 중점적 지원
    - UN 기구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
    - 높은 수준의 증여 비율
    - 수원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프로그램
    - 원조와 수출금융(export funding) 간의 분명한 구분
    - 1980년대까지 국제금융기구(IFIs)에 대한 비판적 태도
    - 높은 GNI대 ODA 비율
    - 인권 및 민주화에 대한 옹호
    - 국제 협상과 규범적 논의의 장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조정자 역할
  - Welcome leadership
- 

# 북유럽 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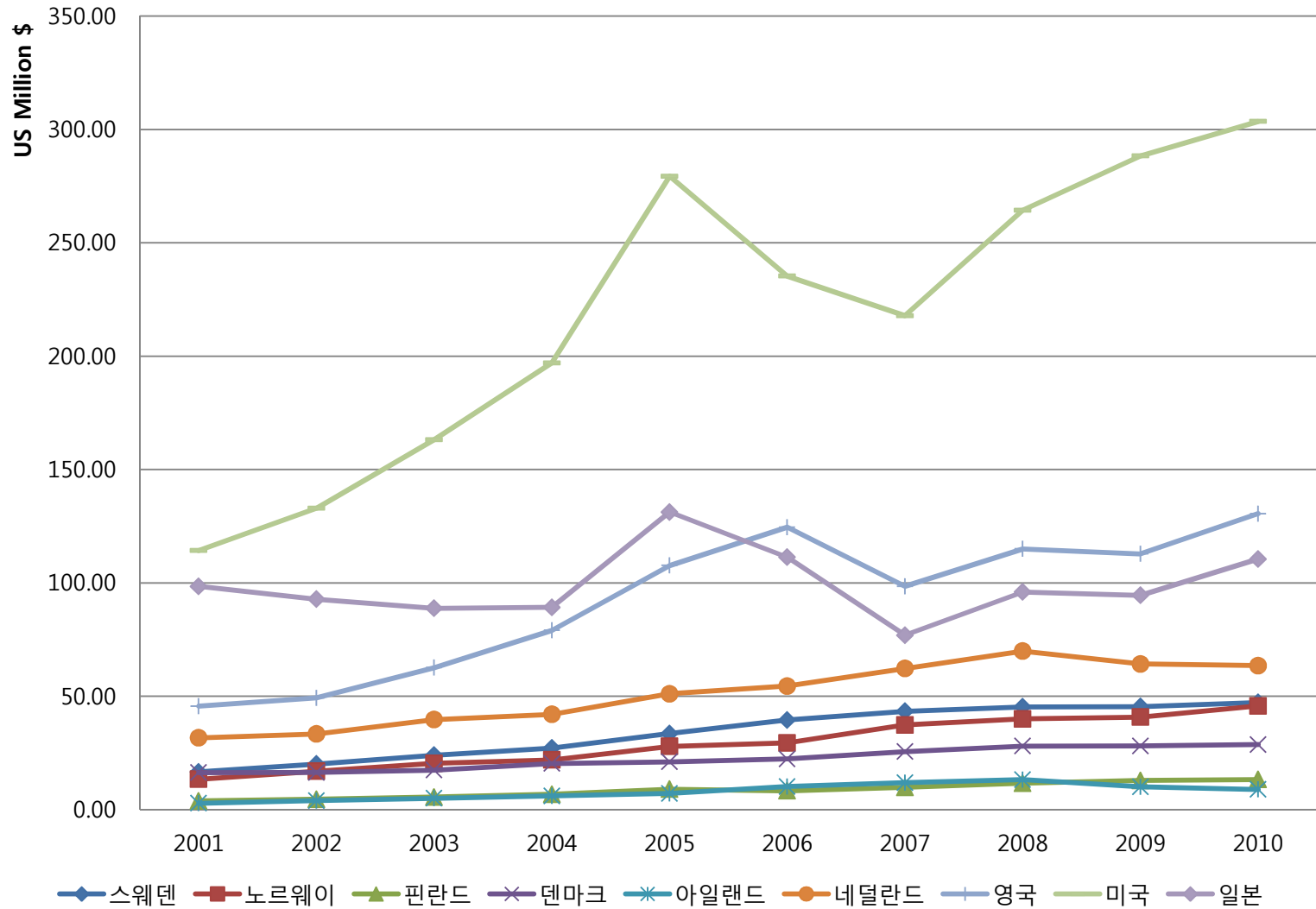
- 개발협력정책의 표준화
-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
- P-A 극복 가능성
- Welcome leadershi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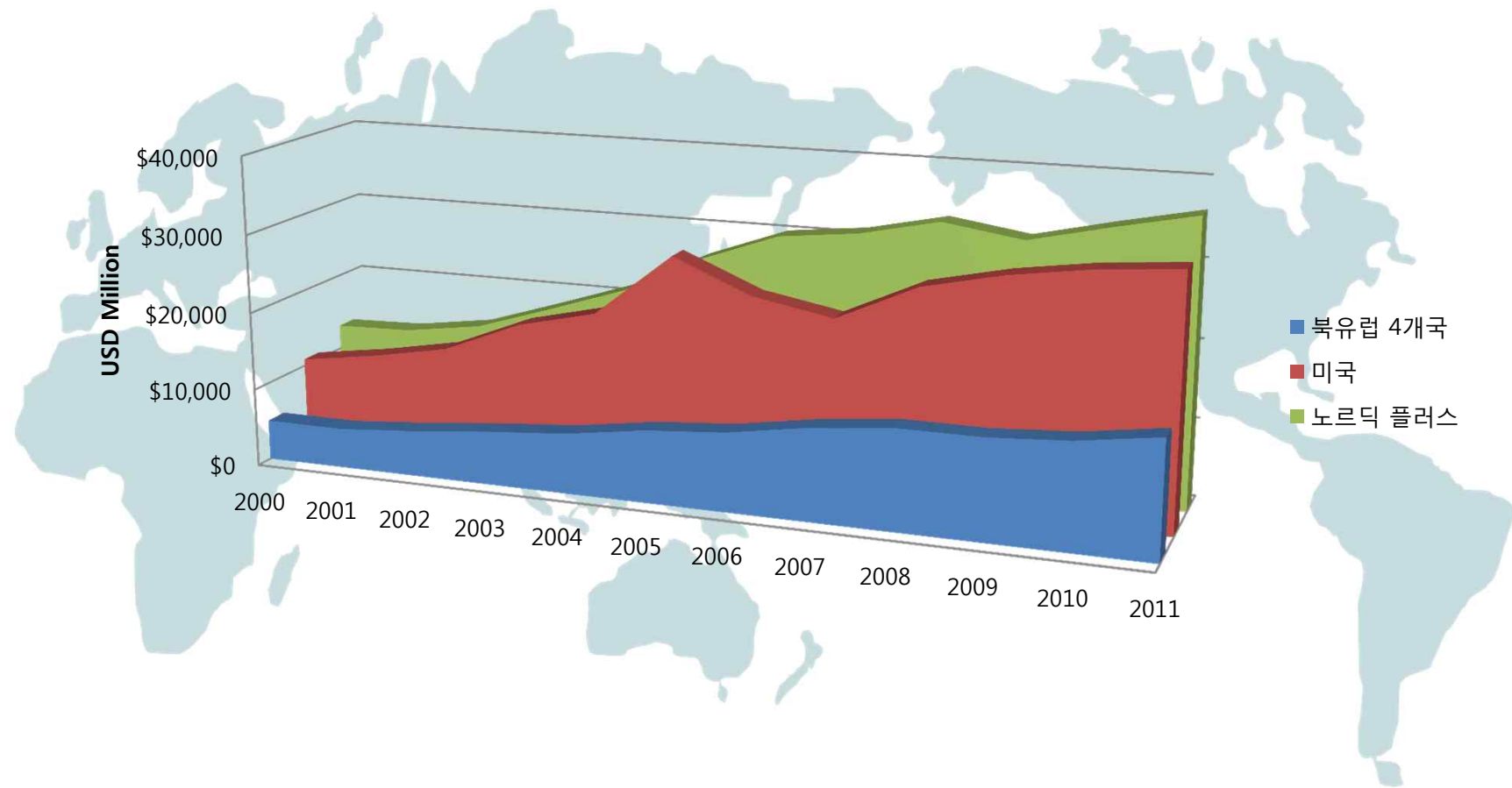
# Why Nordic Plus?

- **Nordic Plus**
    - 북유럽 + 영국, 네덜란드, 아일랜드
  - **Aid fragmentation**
    - 수원국: 스웨덴 (84), 노르웨이 (94), 핀란드 (77), 덴마크 (72)
    - 낮은 원조 집중도: 스웨덴 (45%), 노르웨이 (28%), 핀란드 (28%), 덴마크 (28%)
    - 미국(82%), 일본(85%), 독일(81%)
  - **Aid effectiveness**
  - **Aid harmonization**
- 

# OECD DAC 주요 회원국의 ODA, 2001~2010



# Delegated Cooperation: 이론적 근거



# 위임협력의 메커니즘

- 선도 공여국과 위임 공여국
    - 비교 우위
    - 규모와 범위의 경제
    - 원조 형태
    - 프로그램의 단계와 프로젝트의 사이클,
    - 조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
  - 에티오피아
    - 노르웨이: 보건 분야 선도 공여국
    - 스웨덴: 교육 분야 선도 공여국
  - **Common policy framework**
    - 프로젝트의 준비, 모니터링, 실행, 보고에 대한 절차 결정
- 

# 위임협력의 메커니즘

- 선도 공여국이 자원과 프로그램 관리
- 거래비용 감소
- 규모의 경제 실현
- 위임 공여국의 이니셔티브



## 노르딕 플러스 위임협력의 형성

- 2002: 잠비아에서의 원조 조화 프로세스 합의
- 2003: harmonisation in practice 추진
- 2003: Principles for Delegated Co-operation in NORAD
  - 수원국의 주인의식 증진과 수원국 제도와의 일치
  - 거래비용의 감소만을 위한 협력에 대한 경고
- 2006:
  - 비교우위에 대한 평가
  - Barriers to Delegated Co-operation: Joint Assessment of Policie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Nordic Plus Donors)
  - Full delegation 가이드라인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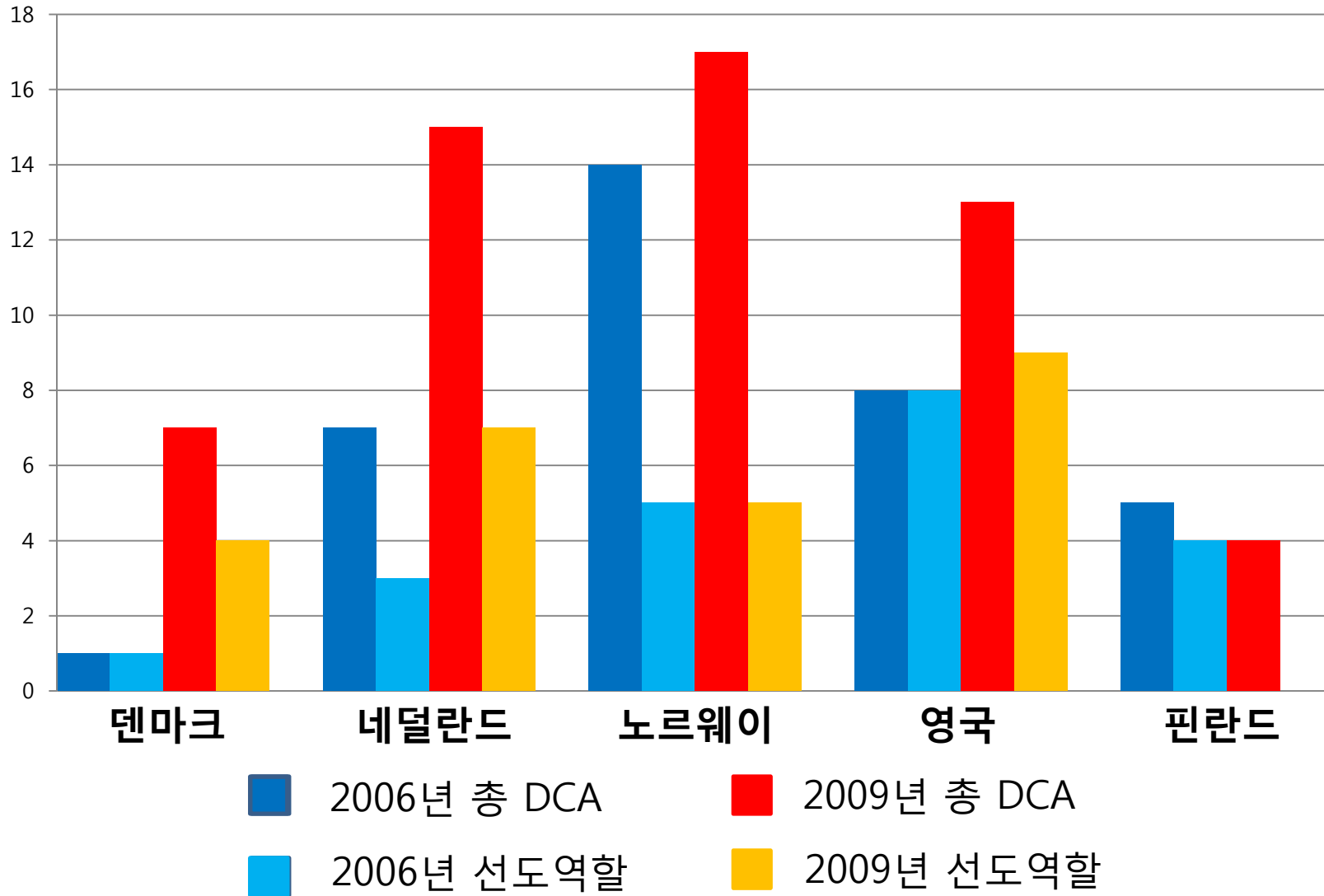


## 노르딕 플러스 위임협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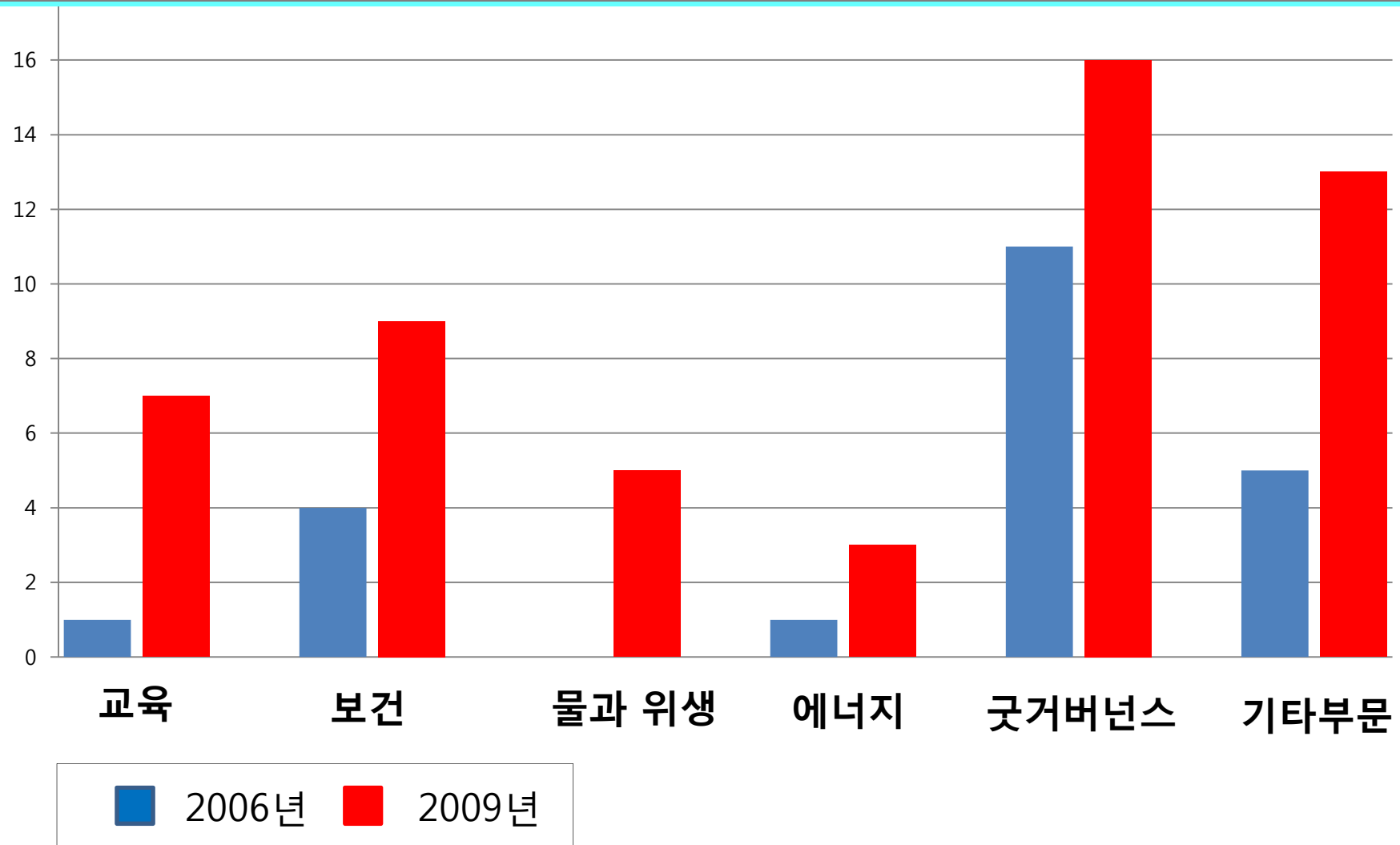
- 2006: 35개 DCA
- 2009: 56개 DCA
  - 2009: EU 12건



# 노르딕 플러스 위임협력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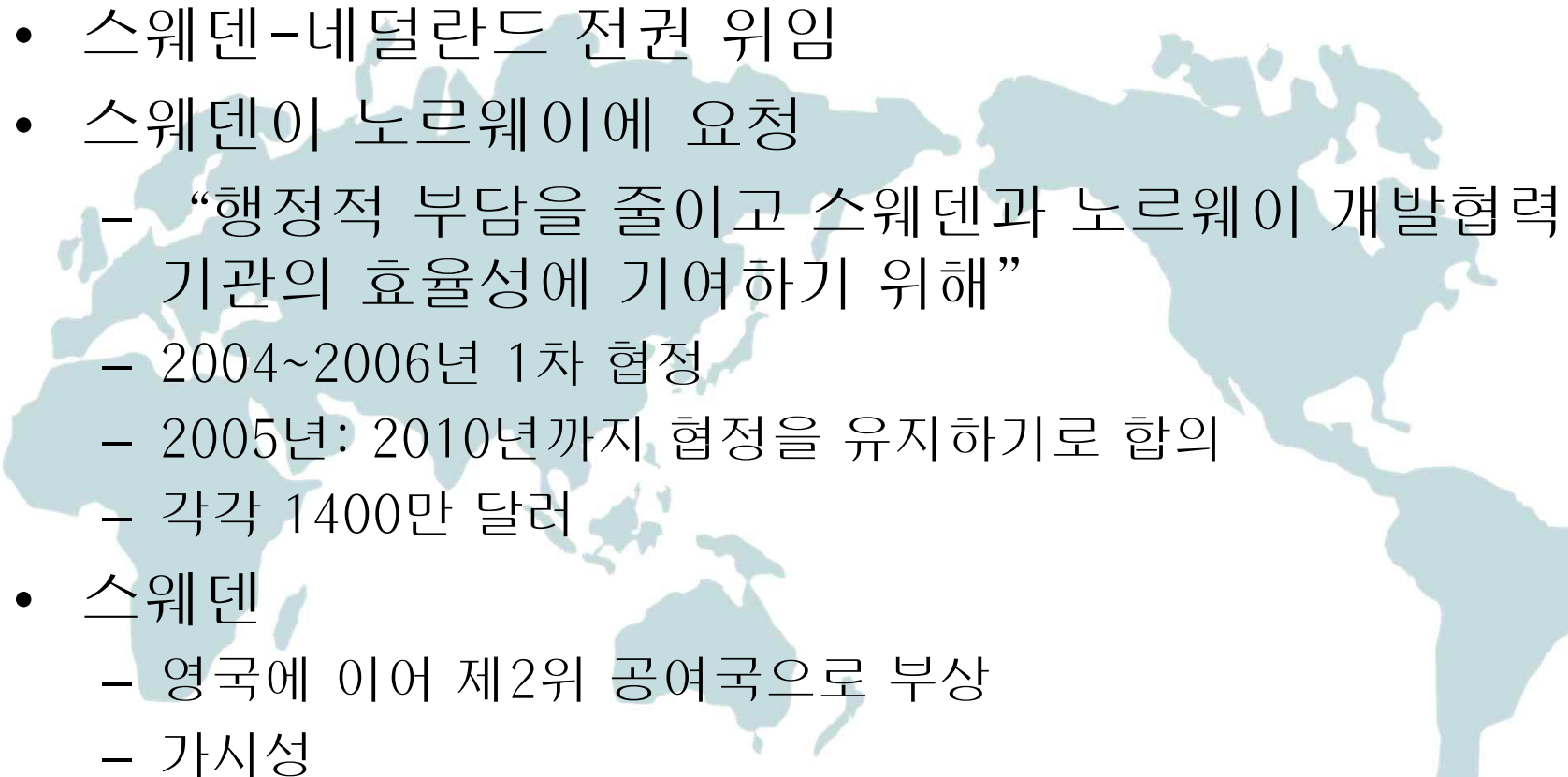
# 위임협력 현황



## 말라위 사례

- 네덜란드-영국 및 스웨덴-노르웨이 간 부분, 전권 위임협력
- 네덜란드-영국 부분 위임
- 2002-2005 5년 간 2940만 유로
- 영국 DFID: 선도 공여국
  - 네덜란드에 연차보고서 제출
- 네덜란드: 위임 공여국
  - 연차보고서 공동 검토를 통해 참여
-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시작
  - 교육 부문에 예산 6% 투입 목표
  - 우선 수원국이 아닌 국가에 위임협력 실시
  - 말라위에 대표부 없었음.

## 말라위 사례

- 스웨덴-네덜란드 전권 위임
  - 스웨덴이 노르웨이에 요청
    - “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개발협력 기관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”
    - 2004~2006년 1차 협정
    - 2005년: 2010년까지 협정을 유지하기로 합의
    - 각각 1400만 달러
  - 스웨덴
    - 영국에 이어 제2위 공여국으로 부상
    - 가시성
-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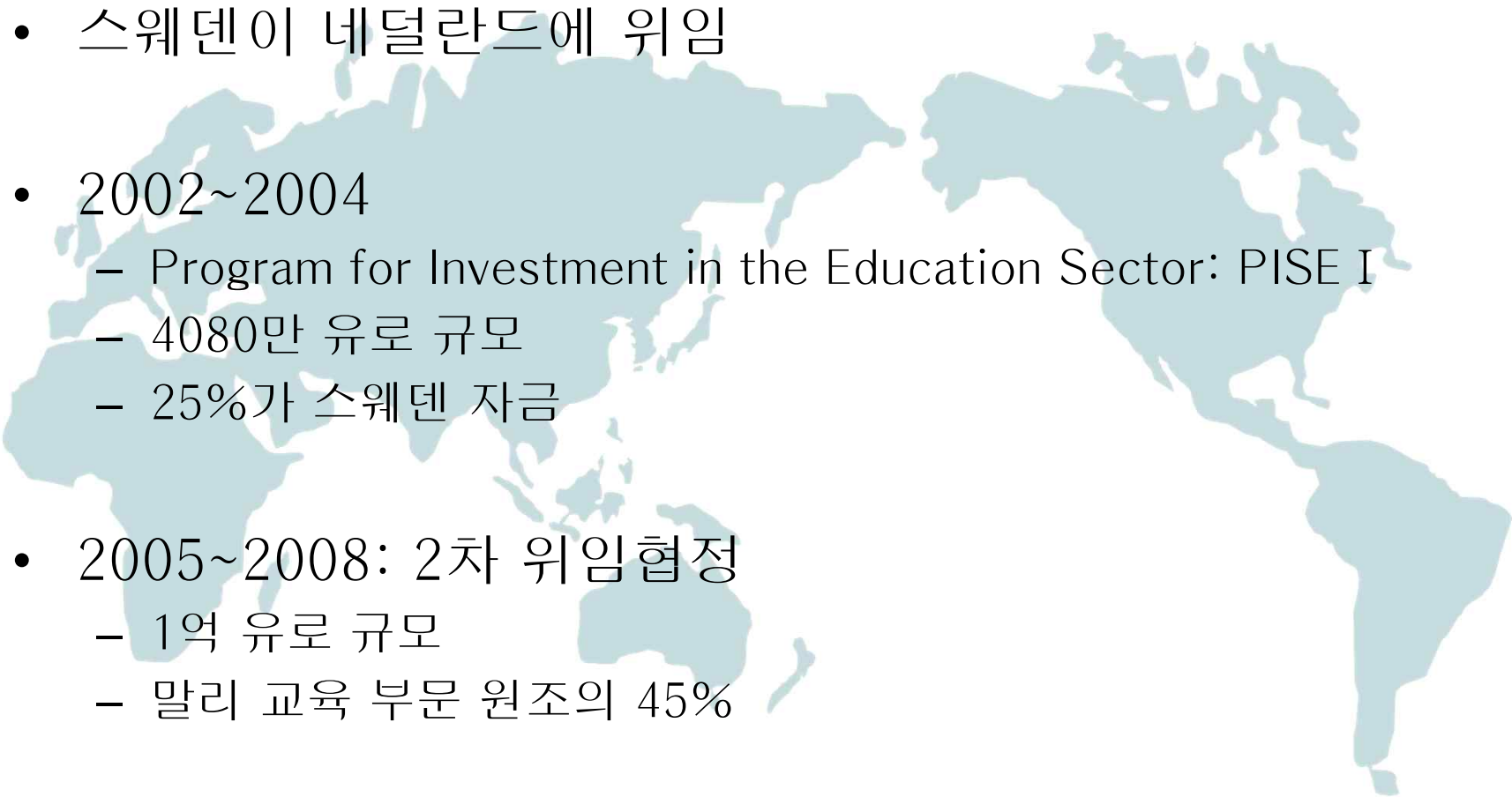
## 말라위 사례

- 원조 분절화의 완화
  - 노르웨이 프로젝트 별 평균 공여액
    - 2008년: 140만 달러
    - 2009년: 200만 달러
    - 2010년: 142만 달러
    - 2011년: 37만 달러
  - 노르딕 플러스: 위임협력을 통해 규모 유지
  - 미국, 일본: 프로젝트 수의 감소를 통해 규모 증가
- 

## 말라위 공여국별 평균 공여액

	2008/09 회계년도			
	참여 섹터수	참여 프로젝트 수	원조총액	프로젝트 당 평균 공여액
노르웨이	8	44	\$61,148,695	\$1,198,470
영국(Dfid)	9	39	\$112,716,639	\$2,890,170
USAID	9	73	\$76,716,380	\$1,050,909
일본	9	32	\$28,959,028	\$904,969
	2010/11 회계년도			
	참여 섹터수	참여 프로젝트 수	원조총액	프로젝트 당 평균 공여액
노르웨이	8	34	\$40,565,123	\$1,193,092
영국(Dfid)	10	39	\$110,079,528	\$2,822,552
USAID	9	53	\$124,503,992	\$2,349,132
일본	8	16	\$30,973,912	\$1,935,869

## 말리: 노르웨이-스웨덴-네덜란드 삼자 위임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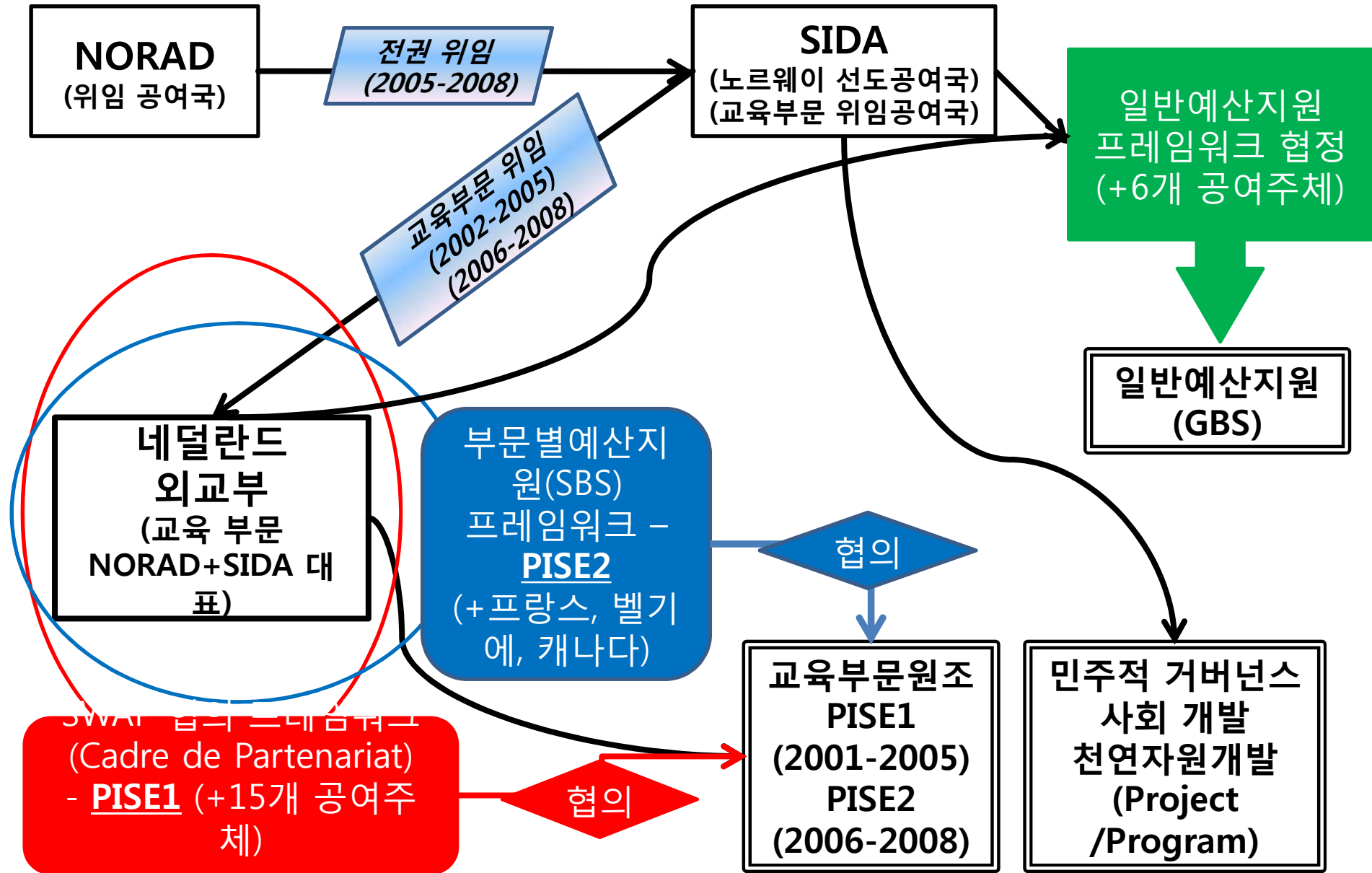
- 스웨덴이 네덜란드에 위임
  - 2002~2004
    - Program for Investment in the Education Sector: PISE I
    - 4080만 유로 규모
    - 25%가 스웨덴 자금
  - 2005~2008: 2차 위임협정
    - 1억 유로 규모
    - 말리 교육 부문 원조의 45%
- 



## 말리: 노르웨이-스웨덴-네덜란드 삼자 위임협력

- 스웨덴-노르웨이 전권위임협력: 2005~2008
    - 스웨덴이 선도 공여국
    - 2005: 5000만 크로네
    - 2006: 6400만 크로네
    - 2007: 5700만 크로네
  - Trilateral double delegated cooperation
  - Delegation chain
- 

# 말리: 노르웨이-스웨덴-네덜란드 삼자 위임협력



# 결론

- 성과
    - 규모 증가
    - 비교우위 극대화
    - 거래비용의 감소
    - Alignment 증대
  - 한계
    - 공여국과 수원국의 소통
    - 이탈을 전제로 한 원조분업은?
- 

## 결론

- 북유럽의 중견국 외교
  - Hard power의 열세 완화
  - Normative power와 결합
  - 가시성과 영향력 증대
  - Like-minded group 기반
  - Coalition building

